

한일정상회담 (08.12.13) 주요 내용

2009.10.22

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후쿠오카를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후쿠오카를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 (2008.12.13)
- 특히 2008년 7월 일본의 중등 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양국간 ‘셔틀외교’가 중단된 이후 10월24일 베이징 아셈회의 때 첫 정상간 접촉이 이뤄진 데 이어 두 달도 못돼 두 정상이 다시 만남에 따라 이제 양국 관계가 서서히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

□ 협의 내용

-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
 -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 실패로 위기에 처한 6자회담과 북핵 문제, 지역 및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
 - * 이 대통령은 상생협력을 모토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을 소개, 아소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

-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 환영 및 협력 합의
 - 두 정상은 한일 금융당국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한 것(전날인 12일 합의)을 환영하고, 앞으로 국제 금융체제 개선 등 G20 금융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합의
 - * 일본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
- 기타 분야 합의
 - 워킹 홀리데이 규모를 7,200명으로 확대하고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

□ 성과

- 이번 정상회담은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 개선의 중대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계속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
- 금융위기 대처 공조, 한일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연장, 한일 관광취업사증제도(워킹홀리데이) 상한선 및 양국 대학생 교류사업 확대 등을 통한 한일관계 발전을 다짐
- 독도나 역사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자제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‘韓日 정상회담, 양국우정 정상화 신호탄 될까’ (헤럴드경제 08.12.13), ‘한일 정상, 금융위기 극복 긴밀 협력’ (YTN뉴스 08.12.13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